

부모의 성취압력 및 학습관여가 아동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학업 스트레스와 학업적 실패내성의 매개효과에 주목하여

이의빈*·김진원**·김소연***

I 알기 쉬운 개요

한국 아동의 낮은 삶의 만족도는 오랫동안 사회적 관심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의 높은 교육열과 사교육의 저 연령화 등이 한국 아동의 낮은 삶의 만족도에 주요한 원인 및 배경으로 논의되어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동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가운데, 학업 스트레스와 학업 실패 경험에 건설적으로 대처하는 학업적 실패내성에 주목하였다. 아동의 학업과 삶의 영역에 부모의 영향력은 매우 높은데, 자녀 교육을 강조하는 사회문화와 부모의 열망은 성취압력 및 학습관여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는 부모의 성취압력 및 학습관여와 아동 자녀의 삶의 만족도 간 관계에서 아동의 학업적 실패내성과 학업 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한국아동패널 12차년도 1,169명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부모의 성취압력은 자녀의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쳤지만, 부모의 학습관여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한, 부모의 성취압력은 아동의 학업 스트레스와 학업적 실패내성을 통해 삶의 만족도에 간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주었지만, 학습관여는 정적으로 간접 영향을 미쳤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의 함의와 제언, 한계점 등을 제시하였다.

* 서강대학교 희망연구소 연구원, lebhin@naver.com

** 협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교신저자,
jwlove24@gmail.com

***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soyuned@naver.com

투 고 일 / 2023. 8. 23.

심 사 일 / 2023. 10. 13.

심사완료일 / 2023. 11. 7.

I 초록

본 연구는 부모의 성취압력과 자녀 학습에 대한 부모의 관여가 아동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더해 자녀의 학업적 실패내성 및 학업 스트레스라는 학업 요인에 주목하여 부모의 성취압력과 학습관여가 학업 요인을 통해 아동의 삶의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가지는지 탐색하고자 하였다. 한국아동패널 12차년도 자료에서 총 1,169명의 사례를 분석에 활용하여,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 상관분석, 경로분석을 진행하였다. 간접효과의 유의성 검증에는 부트스트래핑 방법이 사용되었다. 분석 결과, 첫째, 부모의 성취압력은 자녀의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학습에 대한 부모의 참여는 아동 자녀의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둘째, 부모의 성취압력은 아동의 학업 스트레스와 학업적 실패내성을 통해 자녀의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 간접효과를 보였다. 셋째, 부모의 학습관여와 자녀의 삶의 만족도 간 관계에서 학업 스트레스와 학업적 실패내성은 매개역할을 하였으며, 정적 간접효과가 나타났다. 전술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이론적 의의와 함의를 제시하고, 본 연구가 지니는 한계점과 보완을 위한 후속연구 제언을 하였다.

주제어: 부모의 성취압력, 부모의 학습관여, 학업적 실패내성, 학업 스트레스, 아동의 삶의 만족도, 한국아동패널

I. 서 론

한국 국민의 삶의 질에 관한 보고서(심수진, 남상민, 김은아, 2022)에 따르면, 19세 이상 국민의 삶의 만족도는 최근까지 점차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국제적 기준인 OECD 평균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비단 성인에게서만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아동이 낮은 삶의 만족도를 경험한다는 것은 꾸준히 다양한 자료들을 통해 뒷받침되어왔다(김미숙, 2015). 최근 이루어진 조사들에서도 아동은 국제적 수준에 미루어보아 낮은 수준의 삶의 만족도 및 행복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염유식, 성기호, 2021; 심수진, 김은아, 2022). 그러나 한국 사회는 그동안 아동·청소년이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가에 주로 관심을 두었으며, 그들이 삶에 얼마나 만족하는가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관심은 크지 않았다(심수진 외, 2022).

아동의 학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주목되는 현상은 우리나라 아동이 경험하는 낮은 삶의 만족도를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학업 요인을 간과할 수 없다는 방증이다. 2022년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10명 중 9명은 고민이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고민의 가장 큰 이유는 ‘공부’였다(통계청, 2022). 이처럼 한국 아동의 학업 스트레스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제기되어 왔다. 가령 김미숙(2015)은 국제적 수준에 빗대어 한국 아동의 학업 스트레스 수치가 가장 높았음을 보고하였으며, 4개국의 대학생 4,000명을 대상으로 자국의 교육에 대한 인식을 물었던 한 조사(김희삼, 2017)에서는 우리나라 응답자들의 81%가 아동·청소년의 교육을 ‘사활을 건 전쟁’으로 인식하고 있음이 보고되었다. United Nations(2019)는 우리나라의 아동권리협약 제5-6차 보고서 심의에 대한 최종견해를 통해 우리나라 아동이 경험하는 학업에 대한 지나친 부담과 스트레스를 표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한국 아동이 경험할 수 있는 학업 스트레스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교육 및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의 저연령화는 최근까지도 지속해서 보고되고 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의대 입시반’이 성행하고(김태주, 2023; 임태우, 2023), 전국 1만 1천 명의 조사 결과,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국어, 수학, 영어 위주의 사교육을 시작한다는 응답의 비율이 2/3에 육박하는 것(김지예, 2023)이 그 예이다. 전통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아동은 학령기에 접어들며 학업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과 맞물려, 이상의 논의들은 아동의 낮은 삶의 만족도와 관련하여 학업 스트레스라는 학업 요인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학업 스트레스가 아동의 삶의 만족도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한다면, 아동의 삶의 만족도에 보호적 역할을 할 수 있는 학업적 요인으로서는 학업적 실패내성을 꼽을 수 있다. 실패의 경험 속에서 건설적으로 대처하고 발전해나가고자 하는 경향은 자신의 현재 삶뿐 아니라 미래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지니는 데 자원이 될 수 있다. 실패의 경험은 개인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존재하나, 개인이 삶을 살아가는 데에 있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경험이다(김아영, 1997). 이러한 경험은 개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나 건설적인 반응을 가져오기도 하는데, 실패에 대한 내성은 아동들이 적절한 학업적 도전과제에 자유롭게 참여하기 위해서 필요하다(Clifford, 1988; 김아영, 1997). 실패에 대한 건설적인 대처의 경향을 가지는 것을 일컬어 실패내성이라 한다(Kim & Clifford, 1988). 실패내성은 아동의 학업 영역(서미옥, 2018), 진로(홍국진, 한상철, 2014), 정신건강(김은혜, 조한익, 2021) 등 삶 속 곳곳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아동에게 실패내성은 학업 수행과정에서의 어려움과 실패에 건설적으로 대처하고 탄력적으로 극복하는 역량으로 기능한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학업적 영역에서의 실패내성은 학업성취(김아영, 1997), 학업에 대한 무기력(김수연, 허일범, 2018), 학교수업 및 생활 관련 적응 및 참여(김세영, 2016; 김유진, 김종운, 2013; 최효식, 연은모, 2022; Mirsadegh, Hooman, & Homaei, 2021; Romano, Angelini, Consiglio, & Fiorilli, 2021)와 밀접한 관련을 맺음이 제시되어왔다. 오늘날 많은 아동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 낮은 수준의 행복과 만족 등을 경험한다는 점과 아동의 삶에 학업이 밀접하고 주요한 영역이라는 점(아동권리보장원, 2022)을 미루어보았을 때, 아동이 지각하는 학업적인 실패내성이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 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아동 자녀의 학업과 삶의 영역에 대한 논의에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부모의 영향력이다. 한국 사회의 특징 중 하나는 높은 교육열이며, 이는 자녀가 교육받고자 하는 욕구보다는 자녀의 학력과 성공을 위한 부모의 욕구와 열망으로 대변된다(성정혜, 김춘경, 2019; 심미옥, 2017). 더욱이 예로부터 배움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우리 사회의 문화적 영향과 높은 부모의 교육열은 자녀의 삶, 특히 교육 영역에 대한 부모의 영향력을 강하게 만들 수 있다(봉미미, 김혜연, 신지연, 이수현, 이화숙, 2008; 성정혜, 김춘경, 2019). 이를 반영하듯, 한국에서는 학업에 대한 부모의 관여가 매우 높게 나타난다(오아름, 신태섭, 2017). 그러나 학업에 대한 지나친 부모의 기대와 관여는 오히려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오아름, 신태섭, 2017). 특히, 우리 사회의 높은 교육열과 경쟁 위주의 입시제도의 영향은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학업적 성취압력이 부과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봉미미 외, 2008; 오아름, 신태섭, 2017). 따라서 본 연구는 아동의 학업 스트레스와 학업적 실패내성, 삶의 만족도에 대한 부모의 성취압력의 영향력에 주목하였다.

한편, 자녀의 교육 및 학업에 대한 적절한 부모의 관여는 자녀에게 순기능을 한다(이소희, 2010; 정제영, 정예화, 2015). 부모는 자녀가 유아기일 때 주로 양육과 보호의 역할에 주력하다가 학령기 이후부터 주로 학습을 도와주는 역할로 관심이 옮겨간다(김종덕, 2001). 부모의 학습에 대한 관여는 자녀의 학업성취나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금경희, 조영아,

2018). 부모의 학습관여는 자녀의 학업을 위해 부모가 행사하는 행동들이라 할 수 있는데(김종덕, 2001), 학습에 대한 관여가 어떠한지에 따라 자녀에게 미치는 부모의 영향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금경희, 조영아, 2018; 남필교, 2008). 이에 선행연구들(문은식, 김충희, 2003; 정제영, 정예화, 2015; 금경희, 조영아, 2018)은 자녀의 학업성취를 돕고, 긍정적 발달을 이끌 수 있는 부모의 학습관여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긍정적인 부모의 학습관여는 가정 및 학교 내·외를 기반으로 자녀의 학습행동에 대한 존중과 격려, 학습활동을 조력하는 행동적 차원, 부모교육 참여 등 학교활동을 위한 관계적 참여 등으로 구성된다(금경희, 조영아, 2018). 부모의 학습관여는 모델링, 교육 등을 통해 자녀의 잠재력을 육성하는 방식으로 부모의 역할구성과 효능감을 이끌어 자녀의 학업과 발달에 관련된다(Hoover-Dempsey & Sandler, 1997). 이처럼 부모의 학습관여는 자녀의 학업 영역과 아동 자녀의 삶에 대한 관련성이 높을 수 있다.

이상의 논의에 따르면, 부모의 교육 및 학업 관련 양육방식인 성취압력과 학습관여는 아동의 학업 요인(학업 스트레스와 학업적 실패내성)과 관련되며, 이는 곧 삶의 만족도와 관련됨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통해 본 연구의 관심사를 설명하기에는 두 가지 측면의 제한점이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변수 간 관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살펴본 기존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부모의 성취압력 또는 학습관여와 관련하여,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자녀의 삶의 만족도와 관련성(백미선, 2012; 이분새, 2017; 한은수, 2022), 학업 스트레스 및 학업적 실패내성과의 관련성(문세미, 김종백, 2020; 오아름, 신태섭, 2017; 최정은, 김은하, 2019)을 단편적으로 살펴보았기에 해당 변수 간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변수 간 경로 관계에 있어 기존 논의들을 포괄적으로 연결한다는 측면에서 관련 이론적 토대를 발전시키는 데 일조할 수 있다. 둘째, 선행연구들은 주로 부모의 관여가 자녀의 교육 성과를 높이는 데 주목하고 있다. 부모의 성취압력 또는 학습관여가 미치는 영향에 관한 대다수의 선행연구는 주로 자녀의 학업적 성취(정제영, 정예화, 2015; 홍연주, 이지연, 2012), 학업 스트레스(강선모, 심혜숙, 2010; 박서연, 정영숙, 2010; 정영미, 2021; 최정은, 김은하, 2019) 등과 같이 교육적 성과를 높이는 데 주로 관심을 두고 있다. 한국 사회가 그동안 아동의 삶에 대한 만족보다 학업을 잘 수행하는 것에 주로 관심을 두었다는 것(심수진 외, 2022)을 상기하면, 본 연구는 아동의 삶의 만족도로 논점을 이동하고, 기존의 논의들을 포괄하여 관련 변수 간 경로 관계를 탐색함으로써 이론적 논의를 확장하는 데 의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모의 성취압력과 학습관여가 아동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그 변인 간 관계에서 학업 요인인 학업 스트레스와 학업적 실패내성이 매개적 역할을 하는지를 탐구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변수 간 관계

1) 부모의 성취압력과 학습관여가 자녀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양육방식과 자녀의 삶에 대한 태도 및 만족과의 관계는 국내외에서 활발히 논의되어 온 주제이다. 우리나라 아동의 학업 스트레스가 심각한 수준임이 논의되고 있는 맥락에서, 학업 및 교육과 관련한 부모의 양육방식이 자녀의 삶에 대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은 필수적인 작업이라 사료된다. 학업적 성취, 공부에 대한 압력은 자녀의 삶의 만족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 자녀에게 교육적인 성과를 강요하거나, 지나친 기대를 가하는 양육은 자녀의 행복감과 삶의 만족도, 안녕감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이를 뒷받침한다(백미선, 2012; 정선아, 정윤주, 2022; 최유현, 이진화, 2022; 한은수, 2022). 비록 성취압력을 직접적으로 다룬 것은 아니지만, 자녀의 능력 밖의 성과를 지나치게 기대하고 삶에 간섭하는 양육은 자녀의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 결과(김봉금, 권오용, 2021; 김영민, 임영식, 2013) 또한 상통한 맥락에 있다. 한편, 학업에 대한 정보제공 및 학습 방식 존중과 같은 긍정적인 학습관여는 자녀의 안녕감과 정적 관계를 맺고(백미선, 2012), 부모의 교육참여 및 학교에의 참여(parental involvement in school)는 자녀의 주관적 행복감(이뿐새, 2017)과 삶의 만족도(Suldo, Thalji-Raitano, Hasemeyer, Gelley, & Hoy, 2013)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와 더불어 부모로부터 의사결정을 존중받고, 성취에 대한 과도한 기대와 압력을 가하지 않는 양육을 경험할 때, 자녀의 심리적 안녕감이 높았다는 송미라와 한기백(2015)의 연구 또한 맥을 같이 한다. 이는 학업 영역에서 자녀의 자율성을 존중하기보다 교육적인 성과를 지나치게 강요하고 압박하는 것은 자녀의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적절한 수준의 부모의 학습관여는 자녀의 삶의 만족도를 증가시킬 수 있음을 가리킨다.

2) 부모의 성취압력과 학습관여가 자녀의 학업 스트레스 및 학업적 실패내성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양육방식은 자녀의 학업적 실패내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성취압력과 학습관여는 각각 자녀의 학업 스트레스와 학업적 실패내성에 영향

을 끼칠 수 있다. 성취압력은 아동의 학업 스트레스를 증가시킨다(이의빈, 김진원, 2022a; 이의빈 외, 2022). 또한, 부모의 학업에 대한 압박과 기대는 자녀로 하여금 실수에 대해 더 많은 부담을 느끼게 하고(오아름, 신태섭, 2017), 자녀가 자신의 실패에 대해 개방하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경험(문세미, 김종백, 2020)하게 하는 등 자녀의 실패내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안태영, 박서단, 양수진, 2020). 자녀의 실패내성을 학업적 영역에 초점을 두어 살펴본 연구들(권혜민, 진귀연, 2021; 안태영 외, 2020)에서도 부모의 성취압력적 양육방식은 학업적 실패내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와 더불어, 타율적인 학습 동기를 가진 학생은 자율적 동기를 가진 학생보다 학업 소진의 정도가 높고 학업적 실패내성 수준이 낮았다는 고흥월(2012)에 따르면, 타율적 동기라 볼 수 있는 학업에 대한 지나친 부모의 압박과 간섭인 성취압력이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높이며, 학업적 실패내성을 감소시킬 것이라 유추하게 한다.

성취압력과 달리 자녀의 학업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도움과 조언을 제공하거나, 자녀의 학습 방식 및 관련 의사결정을 존중하는 등의 긍정적 관여를 하는 양육방식은 자녀의 학업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보호적 역할을 한다(이선정, 2019; 이의빈, 김진원, 2022b; 최정은, 김은하, 2019; Rapheal & Paul, 2018). 그뿐만 아니라, 학업 영역에 대한 부모의 긍정적 관여는 학업수행 과정에서 자녀가 실패와 역경을 경험할 때 좌절하기보다 건설적으로 대처하게 한다(김예지, 2020; 서지혜, 이종숙, 2014; 안태영 외, 2020).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일방적 간섭이 아닌 부모와 자녀 간 개방적 의사소통 및 지지는 자녀의 학업적 실패내성 및 탄력성을 증가시켰다는 연구 결과들(유현숙, 선혜연, 2017; Fang, Chan. & Kalogeropoulos, 2020; Permatasari, Ashari, & Ismail, 2021) 또한 유사한 맥락의 결과라 볼 수 있겠다. 이상의 논의는 학업에 대한 부모의 관심과 긍정적 관여는 자녀의 학업적 실패내성에 정적 영향을 미치리라 유추하게 한다.

3) 아동의 학업 스트레스와 학업적 실패내성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아동의 학업 스트레스와 학업적 실패내성은 각각 삶의 만족도에 상이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선, 아동의 학업 스트레스는 아동의 삶의 만족도, 인생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낮추는 요인으로 보고되어 왔다(연은모, 최효식, 2022; 이의빈, 김진원, 2022a; 이의빈, 황신영, 김진원, 2022; Choi, Lee, Yoo, & Ko, 2019). 학업적 무력감이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 결과(Kim, Shin, & Park, 2023) 또한 같은 맥락으로 설명된다. 한편, 학업적 실패내성과 삶의 만족도 간 관계는 논의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국내에서는 드물게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논의(소유경, 양수진, 2021; 진종임, 김남초, 2017)에서 학업적 실패내성과 삶의 만족도 간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데, 학업적 실패내성은 삶의

만족 및 안녕감에 긍정적인 기능을 함을 보고하였다. 한편, 학업적 실패내성은 학업 수행과정에서 경험한 실패에 대해 건설적으로 대처하게 하는 특성을 지닌다(김아영, 1997). 따라서 학업적 실패내성은 학업 영역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역량인 학업적 탄력성 및 효능감과도 유사한 속성을 공유한다고 볼 수 있다. 학업적인 탄력성(Kim & Park, 2020; Turan, 2021), 학업적 자기효능감(고은, 김혜영, 강희순, 2020; Caleon & King, 2020)은 삶의 높은 만족도를 이끄는 요인이다. 이상의 논의는 학업 수행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는 아동의 삶의 만족도를 감소시키는 반면, 학업적 실패내성은 아동이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데에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4) 부모의 성취압력과 학습관여가 자녀의 학업 스트레스 및 학업적 실패내성을 통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성취압력과 학습관여가 자녀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학업 스트레스 및 학업적 실패내성의 매개효과에 대한 실증적 근거는 일부 국내·외의 연구들을 통해 부분적 이나마 살펴볼 수 있다. 먼저, 학업 스트레스의 매개효과와 관련하여, 학업적 성취에 압박을 가하는 양육방식은 자녀의 학업 스트레스를 증가시킴으로써 삶의 만족도 및 행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연은모, 최효식, 2022; 이의빈, 김진원, 2022a; 전숙영, 2023). 부모의 학습관여는 부모가 자녀의 학습활동을 조력하고, 학교 내·외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뿐 아니라 자녀의 자율성을 지지하는 것을 포함한다(금경희, 조영아, 2018). 학업 정보제공, 선택권 부여 및 격려 등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학습관여는 학업 스트레스를 낮추는 데 영향을 미치는데(최정은, 김은하, 2019), 학업을 포함한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자녀의 의사결정을 존중하는 양육은 자녀의 학업 스트레스를 감소시킴으로써 긍정적인 인생에 대한 태도를 증진시킨다(이의빈, 김진원, 2022b).

다음으로, 부모의 성취압력과 학습관여가 자녀의 학업적 실패내성을 통해 삶의 만족도에 이르는 경로에 대한 기존의 논의는 상대적으로 더 제한적인 실정이다. 학업적 실패내성을 다룬 기존 논의들은 주로 학업적 실패내성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어 왔다(박분희, 육진경, 김누리, 2013; Chae, Kim, & Chang, 2016). 이에 본 연구의 관심사인 변수를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으나 유사 개념을 활용한 연구를 살펴보면, 성취압력, 자율성지지 및 관여 등 부모의 양육방식은 자녀의 학업적 실패내성을 경유하여 학업 동기,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김유진, 김중운, 2013; 서지혜, 이종숙, 2014). 또, 부모의 양육방식이 자녀의 탄력성을 매개하여 삶의 만족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김영민, 임영식, 2013)를 살펴볼 수 있다. 부모와 자녀 간 개방적 의사소통 및 지지하는 자녀의 학업적 실패내성

및 탄력성과 관련된다(Fang et al., 2020; Permatasari et al., 2021). 학업적 실패내성이 학업 영역의 탄력성과 유사한 속성을 공유한다는 점을 상기하면, 앞선 논의들은 부모의 성취 압력 및 학습관여가 학업적 실패내성을 통해 자녀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2. 연구문제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아래의 연구문제를 탐구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1. 부모의 성취압력과 학습관여는 자녀의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부모의 성취압력과 자녀의 삶의 만족도 간 관계에서 아동의 학업 스트레스와 학업적 실패내성은 매개하는가?

연구문제 3. 부모의 학습관여와 자녀의 삶의 만족도 간 관계에서 아동의 학업 스트레스와 학업적 실패내성은 매개하는가?

Ⅲ. 연구 방법

1. 분석 자료

본 연구의 분석 자료는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아동패널의 12차년도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한국아동패널은 출생부터 아동의 성장 및 발달과 관련 요인들에 대해 추적,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2008년 출생한 신생아 가구를 모집단으로 하여 층화다단계추출법을 사용해 표본을 추출한 조사이다(육아정책연구소, 2023). 해당 자료는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아동의 삶의 만족도, 학업적 요인, 양육방식 및 인구사회학적 요인들이 모두 조사된 자료이기에 본 연구에서 활용하기에 적합한 자료라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한국아동패널 12차년도 자료는 만 11세에 해당하며, 총 1,169명의 사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2. 측정도구

1)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의 측정에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2010)의 삶의 만족도 문항들이 활용되었다. 해당 척도는 아동에게 ‘나는 사는 게 즐겁다’, ‘나는 내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와 같은 3개의 문항을 묻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범주는 ‘1=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와 같았다. 문항들을 합산한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 수준이 높음을 가리키고자, 걱정거리가 있는지 묻는 문항에 대해 역코딩을 진행하였다. 삶의 만족도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alpha=.647$ 이었다.

2) 부모의 성취압력

부모의 성취압력 척도에는 오아름(2017)의 척도를 바탕으로 한국아동패널에서 아동 연령에 따라 수정하여 활용한 문항들이 사용되었다. ‘부모님은 나에게 남보다 더 좋은 성적을 얻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부모님은 “너는 꼭 성공해야 한다”는 말씀을 종종 하신다’, ‘부모님이 나에게 가장 큰 관심을 갖는 부분은 학교 성적이다’를 포함하는 15개의 문항들이 활용되었고, 값이 클수록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성취압력의 정도가 심함을 가리킨다(1=전혀 그렇지 않다~5=항상 그렇다). 본 연구에서는 15개 문항을 합산하여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본 연구의 성취압력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alpha=.896$ 과 같았다.

3) 부모의 학습관여

부모의 학습관여는 Manz, Fantuzzo and Power (2004)의 측정도구를 기반으로 한국 초등학생에게 적합하도록 문항 수 및 내용이 조정된 문항들이 활용되었다. 본 척도는 2개의 하위 영역, 가정 기반 참여도(10개 문항), 학교 기반 참여도(7개 문항)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호자를 대상으로 조사되었다. 측정 문항은 ‘자녀의 숙제를 도와준다’, ‘자녀에게 학교생활이 어땠는지 물어본다’, ‘학교에서 주관하는 교사-학부모 상담에 참석한다’, ‘자녀의 학교에서 제공하는 워크숍이나 교육에 참석한다’를 포함하여 총 17개로 이루어져 있다. 본 척도는 ‘1=드물다’~‘4=항상 그렇다’와 같은 4점 Likert 척도로 값이 클수록 자녀의 학습에 대해 가족의 참여도가 높은 것을 가리킨다. 본 연구에서는 17개 문항을 합산하여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해당 17개 문항들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alpha=.858$ 이었다.

4) 학업 스트레스

학업 스트레스 척도에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청소년패널조사 학업 스트레스 문항들이 활용되었다. 해당 척도에는 ‘학교 성적이 좋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는다’와 ‘숙제나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를 포함하는 총 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의 응답범주는 ‘1=그런 적 없다’~‘5=항상 그렇다’와 같다. 문항들을 합산한 점수가 클수록 아동이 인지하는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alpha=.788$ 이었다.

5) 학업적 실패내성

학업적 실패내성 척도의 경우, 김아영(2003a), 김아영(2003b)의 AMT 학업동기 검사의 하위 차원인 학업적 실패내성이 활용되었다. 학업적 실패내성 척도는 ‘감정’, ‘행동’, ‘과제난 이도선호’라는 3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 실패의 경험 후에 보이는 감정의 반응의 긍정 혹은 부정의 정도, 실패 경험 후 이를 극복하기 위한 행동, 학습과제의 난이도에 대해 아동이 보이는 인지 및 정서, 행동을 측정하며, 응답범주는 6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1=전혀 아니다’~‘6=매우 그렇다’). 한국아동패널은 조사된 자료를 T점수 체계로 가공한 원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6) 통제변수

통제변수는 다음의 선행연구 검토를 따라 아동의 성별, 부모의 학력과 가구의 소득을 투입하였다. 첫째, 성별에 따라 실패내성 및 학업 스트레스, 삶의 만족도에 차이가 발견되었다는 선행 논의들(김세영, 2016; 김은정, 이선정, 신효식, 2019; 이의빈 외, 2022)을 토대로 이를 통제하고자 하였다. 아동의 성별은 남자를 기준으로 더미변수 처리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0=남자, 1=여자). 둘째, 부모의 학력과 학업 스트레스 및 학업적 실패내성(장유진, 이승연, 송지훈, 홍세희, 2020; 차은주, 2010), 행복(장유진 외, 2020), 학업 관련 양육방식(문은식, 김충희, 2003; 전춘애, 2013)과의 관련성을 보고한 연구를 토대로 어머니와 아버지의 학력을 통제하였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학력은 모두 고등학교 졸업 이하를 기준범주로 더미변수 처리하여 분석에 투입되었다(0=고등학교 졸업 이하, 1=2~3년제 대학 졸업 이상). 셋째,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아동의 학업 요인(김은정 외, 2019; 장유진 외, 2020), 행복(장유진 외, 2020)에 차이가 발견되었다는 연구, 그리고 가정의 경제적 수준과 부모의 학업 관련 양육방식

간 관련성을 보고한 연구(전춘애, 2013)를 바탕으로 가구소득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가구소득은 표준화하여 균등화 가구소득으로 분석에 활용하고자 하였으나, 생성한 균등화 가구소득 변수의 왜도, 첨도의 값이 위험수준을 상회하여 상용로그를 취한 뒤 분석에 투입하였다.

3. 분석 방법

본 연구는 부모의 성취압력과 학습관여가 아동의 학업 스트레스 및 학업적 실패내성을 통해 삶의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탐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닌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분석 절차를 따랐다.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 상관분석을 통해 분석 자료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변수의 경향성을 살펴보고, 변수 간 관계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변수들 간 구조적 관계를 탐구하는 데에는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성취압력과 학습관여가 자녀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아동의 학업 스트레스와 학업적 실패내성의 매개효과는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활용하여 검증하였다.

IV. 분석 결과

1. 분석 자료의 특성 및 변수의 경향

분석 자료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고 변수의 경향을 살펴본 바는 다음과 같다. 아동의 성별 가운데 남자는 605명(51.8%), 여자는 564명(48.2%)이었다. 어머니의 학력 가운데 고등학교 졸업 이하인 경우는 291명(24.9%), 2~3년제 대학 졸업 이상인 경우는 878명(75.1%)이었다. 아버지 학력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인 경우는 298(25.5%), 2~3년제 대학 졸업 이상인 경우는 871명(74.5%)이었다. 로그 균등화가 적용된 가구소득의 평균은 2.39, 표준편차는 .19였다.

표 1

분석 자료의 특성 및 변수의 경향

(N = 1,169)

변수		N(%)	M(SD)
아동 성별	남자	605(51.8)	
	여자	564(48.2)	
모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291(24.9)	
	2~3년제 대학 졸업 이상	878(75.1)	
부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298(25.5)	
	2~3년제 대학 졸업 이상	871(74.5)	
로그 균등화 가구소득			2.39(.19)
아동의 삶의 만족도			10.04(1.53)
부모 성취압력			34.78(10.06)
부모의 학습관여			40.15(8.27)
학업 스트레스			6.32(2.52)
학업적 실패내성			54.83(9.73)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아동의 삶의 만족도 평균은 10.04, 표준편차는 1.53였다. 독립변수 가운데 부모 성취압력의 평균은 34.78, 표준편차는 10.06였고, 부모의 학습관여 평균은 40.15, 표준편차는 8.27이었다. 마지막으로, 학업 스트레스의 평균은 6.32, 표준편차는 2.52였고, 학업적 실패내성의 평균은 54.83, 표준편차는 9.73였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결과는 표 1에 제시된 것과 같다.

2. 상관분석 결과

변수 간 관계의 방향성을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진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종속변수인 아동 자녀의 삶의 만족도는 부모의 성취압력($r=-.19$, $p<.01$), 학업 스트레스($r=-.42$, $p<.01$)와 부적 관계에 있었고, 부모의 학습관여($r=.09$, $p<.01$), 학업적 실패내성($r=.38$, $p<.01$)과 정적 관계에 있었다. 부모의 성취압력은 부모의 학습관여($r=.07$, $p<.05$), 학업 스트레스($r=.35$, $p<.01$)와 정적 상관을 보였고, 학업적 실패내성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r=-.13$, $p<.01$). 마지막으로, 부모의 학습관여와 자녀의 학업 스트레스($r=-.06$, $p<.05$) 및 학업적 실패내성($r=.15$, $p<.01$)은 각각 부적, 정적 상관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학업 스트레스와 학업적 실패내성은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r=-.47$, $p<.01$).

표 2

이변량 상관분석 결과

변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①아동 삶의 만족도	1								
②부모 성취압력	-.19**	1							
③부모 학습관여	.09**	.07*	1						
④학업 스트레스	-.42**	.35**	-.06*	1					
⑤학업적 실패내성	.38**	-.13**	.15**	-.47**	1				
⑥아동 성별 ^a	-.10**	-.07*	-.03	.05	-.07*	1			
⑦모 학력 ^b	.01	-.04	.15**	-.03	.00	-.04	1		
⑧부 학력 ^c	.02	.01	.14**	-.02	.02	-.02	.50**	1	
⑨로그 균등화 가구소득	.02	.02	.07*	-.00	.05	.02	.29**	.25**	1

주1) * $p < .05$, ** $p < .01$

주2) 표의 가독성을 고려하여 변수명을 축약하여 제시하였으며, 상관계수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주3) 범주형 변수의 기준범주는 다음과 같음. ^a ref. 남자, ^b ref. 고등학교 졸업 이하, ^c ref. 고등학교 졸업 이하

3. 경로모형 분석 결과

경로모형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 3에 제시된 것과 같이 도출되었다. 우선, 부모의 성취압력과 학습관여가 자녀의 삶의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 〈연구문제 1〉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아동의 삶의 만족도에 대해 부모의 성취압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부정 영향을 미쳤다($B = -.011$, $p < .05$). 반면, 부모의 학습관여는 자녀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 2〉는 부모의 성취압력과 자녀의 삶의 만족도 간 관계에서 아동의 학업 스트레스와 학업적 실패내성이 매개하는지를 탐구하는 것이다. 먼저, 학업 스트레스와 각 변수의 직접적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모의 성취압력은 학업 스트레스에 정적 영향($B = .091$, $p < .001$)을 미쳤으며, 학업 스트레스는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 영향($B = -.170$, $p < .001$)을 미쳤다. 다음으로 학업적 실패내성의 경우, 부모의 성취압력은 학업적 실패내성에 부정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으며($B = -.140$, $p < .001$), 학업적 실패내성은 삶의 만족도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B = .036$, $p < .001$). <연구문제 2〉에 해당하는 매개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활용하여 변수 간 직·간접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성취압력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총효과는 $-.032$ (95% C.I. = $-.042 \sim -.023$), 총 간접효과는 $-.021$ (95% C.I. = $-.026 \sim -.016$), 직접효과는 $-.011$ (95% C.I. = $-.021 \sim -.002$)로 나타났으며, 모두 95% 신뢰구간의 상한과 하한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각 매개변수별 세부적인 간접효과를 살펴보면, 부모의 성취압력이 학업 스트레스를 경유하여 아동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015(95% C.I.=-.020~-0.011)이었으며, 학업적 실패내성을 경유하여 아동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005(95% C.I.=-.008~-0.003)였다. 두 세부 간접효과 모두 95% 신뢰구간의 상한과 하한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는 부모의 성취압력은 아동 자녀의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학업 스트레스와 학업적 실패내성을 통해 간접적으로 부적 영향을 미침을 가리킨다.

표 3
경로모형 분석 결과

	변수	비표준화	표준오차	표준화
아동의 삶의 만족도	← 부모 성취압력	-.011*	.005	-.075
	← 부모의 학습관여	.008	.005	.043
	← 학업 스트레스	-.170***	.021	-.279
	← 학업적 실패내성	.036***	.005	.230
	← 아동 성별(ref. 남자)	-.210**	.080	-.068
	← 부 학력(ref. 고졸 이하)	.057	.108	.016
	← 모 학력(ref. 고졸 이하)	-.079	.114	-.022
	← 로그 균등화 가구소득	.083	.213	.010
학업 스트레스	← 부모 성취압력	.091***	.008	.363
	← 부모의 학습관여	-.024**	.008	-.080
	← 아동 성별(ref. 남자)	.389**	.138	.077
	← 부 학력(ref. 고졸 이하)	-.037	.193	-.006
	← 모 학력(ref. 고졸 이하)	.026	.195	.004
	← 로그 균등화 가구소득	-.122	.402	-.009
학업적 실패내성	← 부모 성취압력	-.140***	.030	-.145
	← 부모의 학습관여	.184***	.034	.156
	← 아동 성별(ref. 남자)	-1.553**	.549	-.080
	← 부 학력(ref. 고졸 이하)	.288	.714	.013
	← 모 학력(ref. 고졸 이하)	-1.102	.755	-.049
	← 로그 균등화 가구소득	2.746	1.528	.053
효과분해		Estimate	95% C.I.	
부모 성취압력→ 삶의 만족도				
총효과		-.032	-.042 ~ -.023	
직접효과		-.011	-.021 ~ -.002	
총 간접효과		-.021	-.026 ~ -.016	
세부 간접효과				
삶의 만족도 ← 학업 스트레스 ← 성취압력		-.015	-.020 ~ -.011	
삶의 만족도 ← 학업적 실패내성 ← 성취압력		-.005	-.008 ~ -.003	
부모의 학습관여 → 삶의 만족도				
총효과		.019	.009 ~ .029	
직접효과		.008	-.001 ~ .018	
총 간접효과		.011	.006 ~ .016	
세부 간접효과				
삶의 만족도 ← 학업 스트레스 ← 부모의 학습관여		.004	.001 ~ .007	
삶의 만족도 ← 학업적 실패내성 ← 부모의 학습관여		.007	.004 ~ .010	

* $p < .05$, ** $p < .01$ *** $p < .001$

표의 가독성을 고려해 일부 변수명을 축약하여 제시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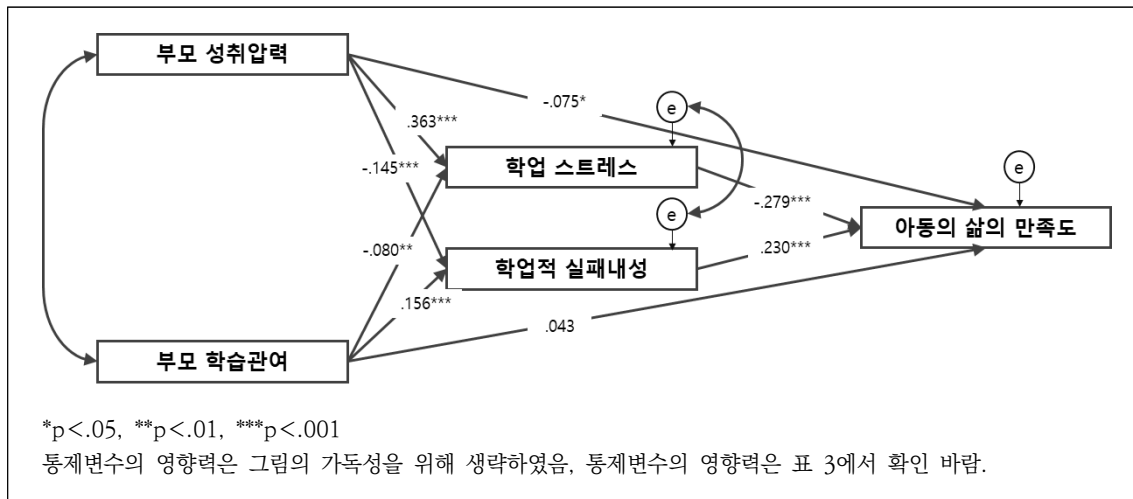


그림 1. 경로모형 분석 결과(표준화 계수)

〈연구문제 3〉은 부모의 학습관여와 자녀의 삶의 만족도 간 관계에서 아동의 학업 스트레스와 학업적 실패내성의 매개적 역할을 살펴보는 것이다. 먼저, 아동의 학업 스트레스를 중심으로 변수 간 직접적 관계를 살펴보면, 부모의 학습관여는 학업 스트레스에 부적 영향을 미쳤으며($B = -.024$, $p < .01$), 학업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는 부적 관계에 있다($B = -.170$, $p < .001$). 학업적 실패내성을 살펴보면, 학습에 대한 부모의 관여는 학업적 실패내성에 정적 방향으로 영향($B = .184$, $p < .001$)을 미쳤으며, 학업적 실패내성은 삶의 만족도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B = .036$, $p < .001$). 〈연구문제 3〉의 매개효과를 구체적으로 탐색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활용하여 변수 간 직·간접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부모의 학습관여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총효과는 .019(95% C.I.=.009~.029), 총 간접효과는 .011(95% C.I.=.006~.016)로 나타났다. 이는 95% 신뢰구간의 상한과 하한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의미한다. 한편, 직접효과는 .008(95% C.I.=-.001~.018)로 나타나 95% 신뢰구간의 상·하한 사이에 0을 포함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 아니었다. 각 매개변수별 세부적인 간접효과를 살펴보면, 부모의 학습관여가 학업 스트레스를 통해 아동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004(95% C.I.=.001~.007)였으며, 학업적 실패내성을 경유하여 아동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007(95% C.I.=.004~.010)이었다. 두 세부 간접효과 모두 95% 신뢰구간의 상한과 하한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아 유의하였다. 이는 부모의 성취압력과 달리, 부모의 학습관여의 매개효과가 아동 자녀의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보다, 학업 스트레스와 학업적 실패내성을 통해 간접적으로 정적 영향을 미침을 가리킨다.

V. 결 론

본 연구는 부모의 성취압력 및 학습관여와 자녀의 삶의 만족도 간 관계를 탐구하고자 하였다. 또한, 그 관계에서 자녀의 학업 요인인 학업 스트레스와 학업적 실패내성의 매개효과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성취압력은 자녀의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는 지나치게 학업 영역에서 경쟁과 성과를 강조하는 양육방식은 자녀의 낮은 삶의 만족도와 관련됨을 의미한다. 이 결과는 학업에 대한 성취압력이 자녀의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기존의 논의들(최유현, 이진화, 2022; 한은수, 2022)에 의해서 지지받을 수 있다. 한편, 부모의 학습관여가 아동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직접효과)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부모의 성취압력은 각 학업 스트레스와 학업적 실패내성을 통해 자녀의 삶의 만족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학업 스트레스와 학업적 실패내성은 부모의 성취압력과 삶의 만족도 간 관계에서 매개적 역할을 함을 가리킨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우선, 성취압력은 학업 스트레스를 통해 삶의 만족도에 간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는 학업적 성취에 압박을 가하는 양육방식은 자녀의 학업 스트레스를 증가시킴으로써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린다는 선행 논의들(연은모, 최효식, 2022; 이의빈, 김진원, 2022a)과 같은 맥락이다. 또한, 성취압력은 학업적 실패내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결국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는 자녀의 학업에 지나친 성취를 강요하거나 지나친 기대를 가하는 양육방식은 자녀가 학업 영역에서 경험하는 실패에 건설적으로 대처하기 어렵게 하고, 낮아진 실패내성은 궁극적으로 자신의 삶에 만족을 낮추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오아름과 신태섭(2017)에 따르면, 부모의 성취압력은 특히 자녀에게 실수에 대한 부담을 느끼게 하며, 자녀가 실수에 대해 고찰을 하더라도 그 실수의 경험으로부터 학습하거나 도전을 못 하게 할 수 있다. 앞서 논의했듯이, 한국 사회의 교육문화를 상기하면, 학업이 중요시되는 아동기의 발달단계에서 높은 교육열과 사교육의 저연령화 현상, 그리고 과도한 학업 부담이 나타나는 것이 아동이 처한 현실일 수 있다. 여기에 더불어 아동이 학업적 영역에서 경험하는 실패에 대해 탄력적이고 도전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게 이끄는 부모의 성취압력은 결국 아동에게 자신의 현재 삶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게 하고, 만족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부모의 양육태도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즉, 부모의 교육적 지도를 포함한 양육태도가 아동의 긍정적 발달에 중요한데,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의 성취압력이 아동기에 경험하는 학업의 어려움과 부담을 강화하고, 삶의 만족도에 역기능적이고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부모의 학습관여와 자녀의 삶의 만족도 간 관계에서 아동의 학업 스트레스와 학업적 실패내성은 각각 매개적 역할을 하였다. 각 매개 경로를 살펴보면, 먼저, 학습에 대한 부모의 관여는 학업 스트레스를 감소시킴으로써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학업 등에 있어 자녀의 의사결정을 존중하는 양육방식과 자녀의 인생에 대한 태도 간 관계에서 학업 스트레스의 간접효과를 밝힌 연구(이의빈, 김진원, 2022b)와 상통한 결과이다. 다음으로, 부모의 학습관여는 학업적 실패내성을 증가시킴으로써 삶의 만족도에 보호적 역할을 하였다. 이는 부모의 긍정적 학습관여는 자녀의 학업수행 과정에서의 탄력적인 힘을 갖는 실패내성을 이끌며(김예지, 2020; 안태영 외, 2020), 자녀의 실패내성을 통해 부모의 자율성 지지 및 관여 등의 양육방식이 학습동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서지혜, 이종숙, 2014)과 유사한 맥락의 결과이다. 즉, 이와 같은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가 자녀의 학습행동에 대해 자율성을 부여하고, 학습 과정에 조력하며, 가정과 학교 내·외 관계적 참여 등을 통해 자녀 교육에 적절히 관여하는 것은 아동이 학업 수행과정에서 경험하는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동기와 힘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사료된다. 그리고 이는 궁극적으로 자신의 삶에 만족하게 하는 결과를 이끄는 것이라 해석해 볼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본 연구가 지니는 의의와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그간 파편적으로 논의되었던 부모의 성취압력 및 학습관여, 자녀의 학업 스트레스 및 실패내성, 삶의 만족도 간 관계를 포괄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관련 이론적 논의의 확장에 일조하였다. 특히, 그간의 선행연구들(강선모, 심혜숙, 2010; 정영미, 2021; 정제영, 정예하, 2015; 홍연주, 이지연, 2012)은 교육의 성과 혹은 학업 적응을 높이는 데에 있어 부모의 관여 또는 성취압력의 영향을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의의 초점이 주로 교육학 등을 중심으로 자녀 학업에 맞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 사회는 그동안 아동의 삶에서 학업을 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상대적으로 삶의 만족에 대한 관심이 적었다고 할 수 있다(심수진 외, 2022). 이러한 측면에서 아동 삶의 만족도를 다룬 본 연구는 기존의 논의를 확장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아동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학업 요인으로 그동안 상대적으로 적은 학술적 관심을 받아 온 학업적 실패내성이라는 개념에 주목하였다. 학업적 실패내성 또한 기존 연구들(고홍월, 2012; 김세영, 2016; 김유진, 김종운, 2013; 서지혜, 이종숙, 2014)에서 학업소진, 학습무기력, 학업동기, 수업적응 등 주로 자녀가 학업을 수행하는 것을 중심으로 논의되었다. 따라서 부모의 교육적 양육방식이 학업 스트레스와 더불어 학업적 실패내성을 통해 아동 삶의 만족도에 대한 영향을 경험적으로 검증한 본 연구는 관련 이론적 지식을 확장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둘째, 부모가 자녀의 교육 과정과 삶의 영역에서 자녀에게 성취에 대한 지나친 압박과 기대를 가하기보다 학업에 대하여 자녀에게 적절한 수준의 지지와 관여를 하는 것이 요구된다.

배움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 사회의 문화적 특성은 교육에 종속된 자녀의 삶에 부모의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고, 높은 교육열과 경쟁적인 교육제도 속에서 자녀에 대한 부모의 학업적 기대 및 압력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봉미미 외, 2008; 오아름, 신태섭, 2017). 본 연구는 자녀의 학업 요인(학업 스트레스 및 학습관여), 삶의 만족도에 대한 부모의 학업 성취 압력이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밝힘으로써, 자녀의 학업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관여와 지원이 지니는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이처럼 학업과 자녀의 삶의 영역에서 바람직한 부모의 양육적 역할이란 무엇일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의의를 지닌다고 사료된다.

셋째, 아동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자녀의 학업 생활을 관리 및 지도하는 데 있어 학업 과정의 자율성 지지, 행동적 참여 및 관계 측면의 적절한 구조를 제공해줄 부모의 학습관여가 요구된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가정 내에서 자녀의 학업에 대해 관여하고, 학교 내·외의 상담, 행사, 부모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부모의 교육적 참여는 자녀의 학업 스트레스를 낮추며, 실패내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부모의 학습관여가 어떤 모습인가에 따라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다를 수 있다(금경희, 조영아, 2018).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부모의 학습관여 행동을 통해 아동의 자율성을 지지하고(김종덕, 2001), 행동적 관점에서 자녀의 학습과 생활을 지도하고 학교 행사 등에 참여하는데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교육지원 활동이 중요하다(심미옥, 2003). 또한, 교육의 관계적 측면으로 부모와 교사, 학교, 학부모 간,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 등 가정과 학교 내·외의 다양한 교류에 참여하는 것이 부모의 긍정적 학습관여라 할 수 있다(문은식, 김충희, 2003; Kohl, Lengua, & McMahon, 2000). 따라서 부모의 학습관여는 자녀의 교육지원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자율성을 지지하며, 가정 및 학교 내·외의 다양한 교류를 구조화하여 제공하는 형태가 적절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부모의 학습관여는 자녀에게 적절한 교육적 환경구조를 제공해줄 뿐 아니라 자녀로 하여금 부모의 관심을 느끼게 함에 따라 자녀의 학업과 삶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 연구가 지니는 의의와 함의에도 다음의 한계 또한 지닌다. 첫째, 본 연구는 횡단 연구로써 부모의 성취압력과 학습관여, 학업적 실패내성, 삶의 만족도 간 관계에 대한 인과성을 확립하기에 무리가 있기에 변수 간 시간적 우선순위의 고려가 요구된다. 후속연구에서는 종단적 연구설계를 통하여 해당 변수들 간 관계에 대해 인과성을 확립하는 시도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뿐만 아니라, 종단적 연구설계와 더불어 후속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방식이 이끈 아동기의 학업적 실패내성 등이 성인기가 되었을 때의 탄력성, 대처 방식, 실패내성 등에 어떤 발달적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작업이 되리라 생각한다.

둘째, 후속연구에서는 학업성취 수준을 통제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룬 부모의

성취압력 및 학습관여, 학업적 실패내성 등은 아동의 학업성취 수준과 관련될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본 연구에서 활용한 분석 자료의 특성상 이를 연구모형에 포함하여 다루기에 무리가 있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검증한 부모의 성취압력, 학업 요인, 삶의 만족도 간 관계는 조심스러운 해석과 접근이 요구된다. 학업성취 수준을 통제할 때, 부모의 양육방식과 자녀의 학업 요인, 삶의 만족도 간 관계를 더 정밀하게 살펴볼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따라서 관련 주제를 다루고자 하는 후속연구에서는 학업성적과 같은 학업성취 수준 변수를 통제변수로 투입해 볼 필요가 있겠다.

셋째, 분석 방법의 측면에서도 보완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변수들 간 구조적 관계를 살펴봄에 있어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경로분석은 측정변수들의 측정오차를 고려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들은 측정오차를 포괄하는 분석 방법을 활용함으로써, 분석의 엄밀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학업 스트레스 및 실패내성, 삶의 만족도에 대해 부모의 학습관여와 성취압력은 각각 상이한 패턴의 관계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가 하면 본 연구 결과, 부모의 성취압력과 학습관여의 이변량 상관관계의 효과 크기는 상대적으로 매우 작지만, 정적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부모의 학습관여는 자녀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며, 부모가 특히 자녀에게 교육적 관심과 기대를 과도하고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행사할 때 스트레스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정인숙, 김정호, 2012). 따라서 적절한 수준의 학습관여 행동이 무엇인지 고찰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부모의 학습관여 패턴에 대한 유형화 고찰 및 성취압력과 관계성 등을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겠다.

마지막으로, 학업 스트레스와 학업적 실패내성 간 관계의 방향성에 대한 후속연구들의 지속적인 논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경우 아동의 학업 스트레스와 학업적 실패내성 간 인과적 방향성을 설정하지 않았다. 두 변수 간 관계에 대해서는 기존에 매우 드문 논의가 이루어진 상태이다. 아동이 아닌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민주, 김가현, 이준우, Vo Nhat Huy, 이상민, 2020)가 그 예이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두 변수 간 관계에 대한 경험적 근거를 축적함으로써 관련 이론적 지식을 확장하는 데에 기여할 필요가 있겠다.

참고문헌

- 강선모, 심혜숙 (2010). 초등학생의 탄력성과 부모학습관여가 시험불안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1(4), 1827-1840. doi:10.15703/kjc.11.4.201012.1827
- 고은, 김혜영, 강희순 (2020). The Impact of Perfectionism and Academic Resilience on Subjective Well-being among Korean Undergraduate Students. **근관절건강학회지**, 27(1), 22-30. doi:10.5953/JMJH.2020.27.1.22
- 고홍월 (2012). 대학생 학습동기 유형에 따른 학업소진과 학업적 실패내성의 차이. **아시아교육연구**, 13(1), 125-147. doi:10.15753/aje.2012.13.1.006
- 권혜민, 진귀연 (2021).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성취압력이 학업적 실패내성에 미치는 영향: 그릿의 매개효과. **한국생활과학회지**, 30(4), 581-592. doi:10.5934/kjhe.2021.30.4.581
- 금경희, 조영아 (2018). 어머니의 학습관여행동 척도개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22), 249-274. doi:10.22251/jlcci.2018.18.22.249
- 김미숙 (2015). 한국아동의 주관적 웰빙수준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2(22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doi:10.23062/2015.02.3
- 김봉금, 원오용. (2021). 과잉양육이 청소년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교우와 교사 관계의 매개효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1(2), 290-300. doi:10.5392/JKCA.2021.21.02.280
- 김세영 (2016). 자아강도, 실패내성 및 수행불안이 학령기 아동의 학교수업적응에 미치는 영향: 성별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37(2), 13-25. doi:10.5723/kjcs.2016.37.2.13
- 김수연, 허일범 (2018).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 양육태도와 학습된 무기력의 관계에서 학업실패내성의 매개효과. **현실치료연구**, 7(1), 1-16.
- 김아영 (1997). 학구적 실패에 대한 내성의 관련변인 연구. **교육심리연구**, 11(2), 1-19.
- 김아영 (2003a). **AMT 학업동기 검사**. (주)인싸이트.
- 김아영 (2003b). **AMT 학업동기 검사 전문가 지침서**. 심리검사연구소 인싸이트.
- 김영민, 임영식 (2013).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잉적 양육, 자아탄력성, 학교적응의 구조적 관계 분석. **청소년복지연구**, 15(2), 343-366.
- 김예지 (2020).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학습관여 및 가족건강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학업적 실패내성을 매개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유진, 김종운 (2013). 중학생의 비합리적 신념 및 지각된 부모의 성취압력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학업실패내성의 매개효과. **한국청소년연구**, 24(2), 119-148.
- 김은정, 이선정, 신효식 (2019). 청소년이 인식한 부모의 학습관여, 가족건강성 및 학업스트레스의 관계.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31(1), 59-75. doi:10.19031/jkheea.2019.03.31.1.59

- 김은혜, 조한익 (2021). 역기능적 완벽주의가 불안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자비와 실패내성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22(3), 41-59. doi:10.15703/kjc.22.3.202106.41
- 김종덕 (2001). **부모의 학습관여형태가 자녀의 학업동기에 미치는 영향**.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희삼 (2017). **사회자본에 대한 교육의 역할과 정책방향** (연구보고서 2017-06). 세종: 한국개발연구원.
- 남필교 (2008). **부모의 학습관여, 학업 자아존중감과 자기주도적학습과의 관계**.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문세미, 김종백 (2020). 부모의 학업성취 압력이 학습자의 학습실패 개방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의 긍정성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18), 473-493. doi:10.22251/jlcci.2020.20.18.473
- 문은식, 김충희 (2003). 부모의 학습지원행동과 초·중학생의 학업동기 및 학업성취도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17(2), 271-288.
- 박분희, 육진경, 김누리 (2013). 영재아의 학업적 실패내성과 자기결정성에 따른 성취목표지향성과 학업성취도의 차이. **영재와 영재교육**, 12(2), 49-67. doi:10.17839/jksgrt.2013.12.2.49
- 박서연, 정영숙 (2010). 어머니의 학업성취압력과 아동의 학업스트레스 및 내재화 문제와의 관계에서 아동의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3(1), 17-32.
- 백미선 (2012). **부모의 교육적 관여가 자녀의 학습동기와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봉미미, 김혜연, 신지연, 이수현, 이화숙 (2008). 한국 청소년의 학습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요인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4(1), 319~348.
- 서미옥 (2018). 중·고등학생의 학업소진과 관련변인들 간의 관계에 대한 메타분석. **교육심리연구**, 32(1), 53-78. doi:10.17286/KJEP.2018.32.1.03
- 서울신문 (2023.7.10). 5세부터 국영수 '선행학습'...절반은 학원 3개 이상 '뽕뽕이'.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710500087>에서 2023년 10월 16일 인출.
- 서지혜, 이종숙 (2014). 아동이 지각한 모의 양육태도와 자기결정성 학습동기의 관계: 학업적 실패내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1(2), 429-454. doi:10.16983/kjsp.2014.11.2.429
- 성정혜, 김춘경 (2019). 부모의 교육열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 학교적응 간 구조적 관계: 아동의 성별에 따른 다집단 분석. **육아정책연구**, 13(2), 47-71. doi:10.5718/kcep.2019.13.2.47
- 소유경, 양수진 (2021). 성인진입기 대학생의 학업적 실패내성과 삶 만족도의 관계에서 그릿(Grit)과 진로적응성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8(4), 363-382. doi:10.21509/KJYS.2021.04.28.4.363

- 송미라, 한기백 (2015). 과학고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또래관계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2(4), 93-111.
- 심미옥 (2003). 초등학교 학부모의 자녀 교육지원활동에 관한 연구. **초등교육연구**, 16(2), 333-358.
- 심미옥 (2017). 교육열 이해를 위한 어머니 감정자본 개념의 유용성과 한계. **교육사회학연구**, 27, 99-134. doi:10.32465/ksocio.2017.27.3.004
- 심수진, 김은아 (2022). **아동·청소년 삶의 질 2022**. 대전: 통계청 통계개발원.
- 심수진, 남상민, 김은아 (2022). **국민 삶의 질 2022**. 대전: 통계청 통계개발원.
- 아동권리보장원 (2022). **2021 아동권리 인식조사**. 아동권리보장원.
- 안태영, 박서단, 양수진 (2020). 그릿은 어떻게 길러지고 사회화되는가? 지각된 부모의 실패마인드셋 및 부모의 학업기대, 그리고 대학생의 실패내성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33(2), 103-121. doi:10.35574/KJDP.2020.6.33.2.103
- 연은모, 최효식 (2022). 부모의 양육스타일, 학업성취압력이 초등학생의 학교적응 및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율성, 학업스트레스의 매개효과 검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14), 313-328. doi:10.22251/jlcci.2022.22.14.313
- 염유식, 성기호 (2021).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연구조사 결과보고서**. 서울: 한국방정환재단.
- 오아름 (2017). **부모 학업 성취 압력이 학습자 실수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 성취 목표지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오아름, 신태섭 (2017). 부모학업성취압력이 학습자 실수인식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 성취목표지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교육심리연구**, 31(3), 409-435. doi:10.17286/KJEP.2017.31.3.03
- 유현숙, 선혜연 (2017).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학업무기력간의 관계에서 학업적 실패내성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5), 223-239. doi:10.22251/jlcci.2017.17.5.223
- 육아정책연구소 (2023). **한국아동패널(PSKC) 제 8차~13차 조사 데이터 사용자 지침서**.
- 이민주, 김가현, 이준우, Vo Nhat Huy, 이상민 (2020). 대학생들의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실패내성이 학업소진에 미치는 영향: 대인관계스트레스의 조절된 매개효과. **한국융합학회논문지**, 11(2), 175-185. doi:10.15207/JKCS.2020.11.2.175
- 이뿐새 (2017). 부모의 교육 참여가 자녀의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진로성숙도를 통한 주관적 행복의 매개된 조절효과. **학교사회복지**, 37, 147-177.
- 이선정 (2019). 청소년이 인식한 부모 학습관여와 자아존중감의 관계에서 학업스트레스의 매개효과.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4(2), 3-24. doi:10.21321/jfr.24.2.3

- 이소희 (2010). 부모의 학업지원이 지능에 대한 변화신념과 성취목표지향성을 매개로 자기조절 학습에 미치는 영향 관계 구조 모형 검증. **청소년학연구**, 17(10), 77-103.
- 이의빈, 김진원 (2022a). 부모의 성취압력이 아동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학업 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문화포럼**, 69, 129-158. doi:10.17854/ffyc.2022.01.69.129
- 이의빈, 김진원 (2022b). 의사결정 존중 양육태도와 자녀의 인생에 대한 태도 간 구조적 관계: 자아존중감과 학업 및 진로 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9(4), 137-164. doi:10.21509/KJYS.2022.04.29.4.137
- 이의빈, 황신영, 김진원 (2022). 부모의 성취압력과 아동의 삶의 만족도 간 관계: 자율성, 여가 시간 부족, 학업 스트레스의 매개효과. **한국아동복지학**, 71(4), 31-62. doi:10.24300/jkscw.2022.12.71.4.31
- 장유진, 이승연, 송지훈, 홍세희 (2020). 부모 학력과 경제 수준이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사교육 시간과 학업 스트레스의 순차적 매개효과 검증. **청소년학연구**, 27(12), 249-273. doi:10.21509/KJYS.2020.12.27.12.249
- 전숙영 (2023). 부모의 학업성취 압력과 아동의 행복감의 관계: 자아탄력성에 의해 조절된 학업 스트레스의 매개효과. **한국생애놀이치료학회지**, 6(1), 21-39. doi:10.54880/klpta.6.1.21
- 전춘애 (2013).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교육지원활동과 도움인식정도에 관한 연구. **청소년상담 연구**, 21(1), 291-317. doi:10.35151/kyci.2013.21.1.013
- 정선아, 정윤주 (2022).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 또래관계와 진로태도성숙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21), 17-43. doi:10.22251/jlcci.2022.22.21.17
- 정영미 (2021). 부모의 성취압력이 아동의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학업수행능력의 매개 효과. **인문사회** 21, 12(2), 2777-2789. doi:10.22143/HSS21.12.2.195
- 정인숙, 김정효 (2012). 학습관여 스트레스 대처를 위한 초등학교 학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 독서활동을 활용한 집단 상담을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19(2), 151-174.
- 정제영, 정예화 (2015). 부모의 교육적 관여 수준이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2(7), 73-93.
- 조선일보 (2023.2.18.). [NOW] 초등 4학년 '의대 입시반'까지 생겼다. <https://www.chosun.com/national/education/2023/02/18/ULL3FCZU6VFVNKQR72GN5SDJT4/>에서 2023년 10월 16일 인출.
- 진종임, 김남초 (2017). 간호대학생의 투지(Grit), 학업탄력성 및 심리적 안녕감. **한국간호교육 학회지**, 23(2), 175-183. doi:10.5977/jkasne.2017.23.2.175
- 차은주 (2010). **인문계 고등학생의 자아탄력성, 학업적 실패내성,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유현, 이진화 (2022). 아동의 자아탄력성, 부모의 성취압력과 아동의 행복감 간의 관계. **인문사회**21, 13(6), 2195-2210. doi:10.22143/HSS21.13.6.151
- 최정은, 김은하 (2019).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학습관여행동과 학업 스트레스의 관계: 학업 자아개념의 매개효과. **한국웰니스학회지**, 14(1), 323-334. doi:10.21097/ksw.2019.02.14.1.339
- 최효식, 연은모 (2022).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 애착, 성격 5요인, 학업적 실패내성, 학교적응 간 구조적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20), 479-493. doi:10.22251/jlcci.2022.22.20.479
- 통계청 (2022). **2022년 사회조사 결과**. 보도자료.
- 한국아동청소년패널 (2010). **초4패널 1차_삶의 만족도**.
- 한국청소년패널조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초4패널(2004-2008), 중2패널(2003-2008)**.
- 한은수 (2022). 부모의 성취압력이 초등학생의 또래애착을 매개로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학교 폭력 피해경험 유무에 따른 잠재평균분석과 다집단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8), 587-600. doi:10.22251/jlcci.2022.22.8.587
- 홍국진, 한상철 (2014).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패내성의 매개효과. **한국청소년연구**, 25(3), 125-143. doi:10.14816/sky.2014.25.3.125
- 홍연주, 이지연 (2012).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초등학생의 학업성취 간의 관계에서 부모의 학습관여와 초등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아동교육**, 21(2), 325-342.
- SBS NEWS (2023.3.7). 한두 곳 아냐...선행학습 경쟁이 부른 '초등 의대반'.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105672에서 2023년 10월 16일 인출
- Caleon, I. S., & King, R. B. (2020). Examining the phenomenon of resilience in schools.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ssessment*, 37(1), 52-64. doi:10.1027/1015-5759/a000572
- Chae, S. J., Kim, M., & Chang, K. H. (2016). Longitudinal analysis of the effect of academic failure tolerance on academic achievement fluctuation in medical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Medical Education*, 28(1), 25-28. doi:10.3946/kjme.2016.6
- Choi, C., Lee, J., Yoo, M. S., & Ko, E. (2019). South Korean children's academic achievement and subjective well-being: The mediation of academic stress and the moderation of perceived fairness of parents and teachers.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100, 22-30. doi:10.1016/j.childyouth.2019.02.004

- Clifford, M. M. (1988). Failure tolerance and academic risk-taking in ten-to-twelve-year-old students.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58(1), 15-27. doi:10.1111/j.2044-8279.1988.tb00875.x
- Fang, G., Chan, P. W. K., & Kalogeropoulos, P. (2020). Social support and academic achievement of Chinese low-income children: A mediation effect of academic resili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ical Research*, 13(1), 19-28. doi:10.21500/20112084.4480
- Hoover-Dempsey, K. V., & Sandler, H. M. (1997). Why do parents become involved in their children's education?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67(1), 3-42. doi:10.3102/00346543067001003
- Kim, A. & Clifford, M. M. (1988). Goal source, goal difficulty, and individual difference variables as predictors of responses to failure.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58(1), 28-43. doi:10.1111/j.2044-8279.1988.tb00876.x
- Kim, M. J. & Park, J. H. (2020). Academic self-efficacy and life satisfaction among adolescents: Mediating effects of self-transcendence. *Child & Youth Services*, 41(4), 387-408. doi:10.1080/0145935X.2020.1852920
- Kim, M., Shin, K., & Park, S. (2023). Academic Helplessness and Life Satisfaction in Korean Adolescents: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s of Leisure Time Physical Activity. *Healthcare*, 11(3), 298. doi:10.3390/healthcare11030298
- Kohl, G. O., Lengua, L. J., & McMahon, R. J. (2000). Parent involvement in school conceptualizing multiple dimensions and their relations with family and demographic risk factors.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38(6), 501-523. doi:10.1016/S0022-4405(00)00050-9
- Manz, P. H., Fantuzzo, J. W., & Power, T. J. (2004). Multidimensional assessment of family involvement among urban elementary students.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42, 461-475. doi:10.1016/j.jsp.2004.08.002
- Mirsadegh, N., Hooman, F., & Homaei, R. (2021). Relationship between tolerance of ambiguity and family cohesion with academic engagement based on mediating role of academic resilience in female students.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7(1), 1-11. doi:10.22037/sdh.v7i1.34811
- Permatasari, N., Ashari, F. R., & Ismail, N. (2021). Contribution of perceived social support (peer, family, and teacher) to academic resilience during COVID-19. *Golden Ratio of Social Science and Education*, 1(1), 1-12. doi:10.52970/grsse.v1i1.94

- Rapheal, J., & Paul, V. K. (2018). Parental educational involvement and educational stress among adolescents of Kerala: Mediational effect of psychological control. *Indian Journal of Social Psychiatry*, 34(3), 231-238. doi:10.4103/ijsp.ijsp_121_17
- Romano, L., Angelini, G., consiglio, P., & Fiorilli, C. (2021). Academic resilience and engagement in high school students: The mediating role of perceived teacher emotional support. *European Journal of Investigation in Health, Psychology and Education*, 11, 334-344. doi:10.3390/ejihpe11020025
- Suldo, S. M., Thalji-Raitano, A., Hasemeyer, M., Gelley, C. D., & Hoy, B. (2013). Understanding middle school students life satisfaction: Does school climate matter?. *Applied Research Quality Life*, 8, 169-182. doi:10.1007/s11482-012-9185-7
- Turan, M. E. (2021).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Emotional Learning Competencies and Life Satisfaction in Adolescents: Mediating Role of Academic Resilience. *International Online Journal of Educational Sciences*, 13(4), 1126-1142. doi:10.15345/iojes.2021.04.012
- United Nations. (2019).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combined fifth and sixth periodic reports of the Republic of Korea*. United Nations.

ABSTRACT

The effect of parental academic pressure and parental academic involvement on children's life satisfaction through the mediating roles of academic stress and tolerance of academic failure

Lee, Eui Bhin*·Kim, Jinwon**·Kim, Soyun***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effect of parental academic pressure and parental academic involvement on children's life satisfaction, and focused attention especially on the mediating role of academic stress and tolerance of academic failure. This study used 1,169 cases from the 12th wave of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 analysis, and path analysis were us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of the variables, and bootstrapping methodology was conducted to test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of indirect effects.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parental academic pressure were negatively associated with children's life satisfaction, while parental academic involvement was not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life satisfaction. Second, parental academic pressure had negative indirect effects on children's life satisfaction through children's academic stress and tolerance of academic failure. Third, parental academic involvement had positive indirect effects on children's life satisfaction through children's academic stress and tolerance of academic failure. This study concluded with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to supplement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study.

Key Words: parental achievement pressure, parental academic involvement, academic stress, academic failure tolerance, life satisfaction, PSKC

* Institute for Hope Research, Sogang University, Researcher

**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Hyupsung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Corresponding author

***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Sungkyunkwan University, Ph.D. student